

전북대 송철규 교수, 산업보안기술연구회 회장에

전북대학교 송철규 교수(공대 전자공학부)가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산업 분야 산업보안 연구를 이룰 산업보안기술연구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1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보안기술연구회는 최근 창립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고, 국가 핵심 산업의 보안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출범한 산업보안기술연구회는 전국 산학연, 국가 정보기관, 산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연구회는 바이오·농생명 등 첨단 융합산업의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상용화,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산업보안 관련 영역을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창립기념 세미나에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우영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포렌식산업기술협회 우한곤 상근부회장, 중앙대 지운석 교수, 명지대 강원선 교수 등 국내 최고 산업보안 및 기술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보안 현장 실무 경험과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했다.

송철규 초대 회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전문가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신규 보안 기술 개발과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산학연과 협력 모델을 확대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실질적 기술 보호와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표준 마련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농·축협, 순창장류축제 '대박 기원' 행사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지난 14일 관내 농협 조합장, 순창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군지부 텃밭정원에서 눈부신 성과와 행운을 상징하는 '커다란(大) 박'을 수확하면서,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대박 나기를 기원하는 축제 홍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신종철 군지부장, 순창농협 김성철 조합장, 동계농협 양준식 조합장, 구립농협 김순용 조합장, 서순창농협 설득환 조합장, 순창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군지부 직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주차장에 조성한 '텃밭 정원'에서 보름달처럼 둥근 '대박'과 여주, 파프리카 등을 수확하며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전심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직접 수확한 '커다란 대박' 등을 들고,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17~19일 순창을 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을 한마음 한 뜻으로 기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임실N처즈축제서 'J-커뮤니티캠퍼스' 홍보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 RISE 사업단은 최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5 임실치즈축제'에 참여해 'J-커뮤니티캠퍼스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민과 함께 평생학습의 가치를 알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RISE 사업의 핵심 추진 분야인 '평생교육 가치 확산 J-커뮤니티캠퍼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며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축제 기간 동안 전주대는 J-커뮤니티캠퍼스의 취지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등을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금동, 겨울 이불세트 등 취약계층 50가구 지원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난방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알레르기 케어 기능이 적용된 겨울 이불세트(패드, 이불, 베개커버)와 안전 전기장판을 50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주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생활실태를 살피는 '1일 1가구 소행령'을 통해 발굴된 복지 수요를 반영해 보온성, 위생, 안정성을 두루 갖춘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불 세트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차단하는 소재를 사용해 민감한 주민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기장판은 과열 방지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세탁이 가능해 위생 관리에도 용이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 기여도 '최고등급'

지역 응급의료체계 3년 연속 신뢰도 입증… 비상 상황 속 응급환자 안전 확보 노력 '결실'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에서 3회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신뢰도를 입증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병원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대응 역량과 비상진료 체계 운영 수준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6~8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 증감률 △중증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증감률 △중증응급환자 전원 비율 증감률 △의사 상주 배점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산정했다.

전북대병원은 정교한 성과로 기록했다. 수용 증가율은 1.242%, 수용 분담률은 429.5%, 진료 증가율은 2,234.8%로 나타나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탁월한 대응력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2024년 12월~2025년 2월 1차, 3~5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에서 3회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사진은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월 2차 평가에 이어 세 번째 연속 최고등급으로, 응급진료 시스템 개선과 배후진료 수용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양종철 병원장은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에서 3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 병원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응급의료의 중심 병원으로서 허브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인권경영 선언식·인권 교육 진행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 경영' 실천 의지 강화 다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지난 14일 오후,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인권경영 선언식'과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인권경영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자 사회적 신뢰 확보의 동력으로 인식한 가운데 이날 인권경영선언식을 가졌다. 인권경영 선언식에서는 인권경영 추진경과 보고와 임직원들이 함께 '인권경영 선언문'을 낭독하며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 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위촉강사인 오지을 노무사가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과 '갑질·을질 사례 및 행동 강령'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중헌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한 가운데 오늘 선언식과 교육을 진행했다”라며 “인권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



가, 인권침해신고센터와 인권 소통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인권 중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전북 지역 청년 간담회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원장 정정희)는 지난 14일 '2025 청년의 발견 - 청년 단체·협동조합 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들의 현장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 조성과 지속 가능한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주도형 활동이 지역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성평등한 제도 환경과 청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여자들은 지역 청년 단체와 협동조합이 자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과 행정적 지원 체계 확립,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와 참여 보장, 공동체 내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 관행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 기회나 지원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청년 활동이 단순한 지역 사업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 생산·확산하는 역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희 원장은 “청년 단체·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주체”라며 “청년이 지역 안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곧 정착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는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제도화를 위해 성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



산, 지역 정책 모니터링, 지역 특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동물 체험 참가자 모집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는 오는 25일 익산캠퍼스서 개최되는 어린이 대상 야생동물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체험은 익산특성화캠퍼스 내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 어린이들은 수의사 가운을 착용하고 실제 진료 환경을 체험하게 된다. 야생동물이 치료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진료실 △약제실 △방사선실 등을 둘러보며 수의사의 역할과 생명 구조 활동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 새집 만들기 체험 활동도 진행해 자연 보호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15명이며, 신청은 17일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nu.ac.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g3081@jnu.ac.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홍수진 교수, 이병기 우수논문상 수상

우석대학교 홍수진(교양대학) 교수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공학 교육학술대회'에서 올해의 '이병기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2008년 제정된 이 상은 한국학술재단 등재지인 '공학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협력기관들의 추천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해마다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인 연구자에게 수여되고 있다.

이에 홍 교수는 “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모형 개발”을 주제로 공학교육에서 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모델을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홍수진 교수는 지난 2021년에는 ‘공학인재 육성 및 산학협력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공과대학협회의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은 바 있다.

홍 교수는 “융합적 관점에서의 공학교육이 공학 분야를 넘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느린학습자 지도 전략 연수 실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15일 장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 '수업혁신과 협력 향상'을 이끄는 느린학습자 지도 전략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실 내 다양한 학습 속도를 지닌 학생들을 이해하고, 특히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해 수업의 질적 향상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국립창원대학교 최진오 교수가 초빙되어 대상학생의 원인 및 학습특성 파악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정서·행동 지원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중등 기초학력 담당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특수지원센터의 교사들까지 40여명이 참석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수업 전략을 모색하고, 수업 속 학생 참여를 높이는 실질적인 지도 방법을 배우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소방, 중증환자 소방헬기 이송 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중증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헬기 이송 노하우를 일반 구급대와 공유하고, 현장-헬기 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구급대원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5일 도내 소방서 구급대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 과정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 소방헬기 운용 절차 △현장-헬기 간 환자 인계 방법 △산악·수난사고 시 항공구조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구급대원들은 실제 산악사고 현장을 가정해 들것 고정, 헬기 착륙지점 확보, 환자 인계 절차를 반복 숙달하며 실전 대응능력을 높였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지진 발생 가정 호남권역 통합대응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025년 4분기 호남권역 지진 대비 화상사고 통합대응훈련을 15일 호남 119특수구조대(전남 화순군 이양면 화포로 327)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노후화로 인해 암모니아와 톨루엔이 누출된 상황을 연출해 진행됐다. 실제 발생했던 재난 상황을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현장 대응과 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에 큰 의미가 있었다.

훈련에는 △전북특수대응단 △광주특수대응단 △전남특수대응단 △제주특수대응단 △충청남구조본부 호남특수구조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구조대원 80여 명과 특수구조차·제독차 등 장비 30대가 투입돼 실전과 같은 합동훈련이 이뤄졌다. /이만호 기자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AAC활용 기반 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장 김윤범)는 16일 도내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보완대체의사소통(AAC)활용'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AAC의 개념과 필요성 △나의 AAC 앱 사용 실습 △학교 현장에서의 AAC활용 사례(NC문화재단, 라라언어클리닉 조연주 원장) 등을 다뤘었으며 직접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를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된다. /김제=곽노태 기자